

종무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태고종, 종무원 실무국장단 연석회의 첫 개최 정보교류·개혁불사 추진 기폭제 역할 기대



9월 18일 태고종 청중이래 서울 봉원사에서 처음 열린 실무국장단 연석회의. 태고종은 소장파 스님들이 주축인 국정급 회의를 정례화시켜 능동적인 종무행정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태고종(종무원장 운산)이 일선 포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종무행정에 적극 반영한다. 태고종은 9월 18일 장종 이래 첫 교구 종무원 실무국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종단 개혁불사를 위한 제도약에 나섰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방 교구 종무원의 종추신경 역할을 하고 있는 실무국장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종무행정 참여를 유도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 할 계획이어서 서로간의 활발한 정보 교류는 물론 개혁불사 추진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종무원 국장 스님들은 종무원장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선암사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선암사 재적승들과의 대화에도 참여키로 하고, 잠정 연기됐던 30기 수계법회도 10월초 추석연휴가 끝나는 대로 봉행될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부산 교구종무원 교무국장 의호 스님은 "솔직히 그동안 실무국장들은 종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냥 시행하는 일반 했다. 하지만 회의가 활성화 되면 종단 정책도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풍토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종도들과 가장 많이 접하는 국장들의 회의가 활성화 되면 일방적 지시가 아닌 종단과 종도들이 쌍방향으로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실무국장 회의의 탄생은 종단 개혁 불사 방향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태고종 관계자들은 낙관하고 있다. 하나의 종무원에 소속된 실무국장들은 4-6명이므로, 19개 종무원이 있는 태고종의 실무국장들이 모두 모이면 1백여명이 넘는 막강한 의결 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것.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종단의 개혁 방향과 정책을 수많은 종도들에게 알리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종무회의에 참석한 종무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자신의 교구로 들어가 종단 생각을 전달하지 못하면 종무원장 연석회의는 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태고종은 앞으로 효율적인 실무국장 회의를 위해 국장 스님 전체가 모이는 총회와 총무·교무국장 등 각 부별로 세분화 돼 진행되는 회의 등 다양한 방면으로 종무원장의 목소리를 종단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필 기자 jikim@buddhapia.com



“최전방 일요법회 후원해 주세요”

을지사 포교원

“인제이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살겠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말이다. 원래는 원통에 사는 사람이 인제에 가게 되면 험한 설악산을 몇고개나 넘어야 하고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 주민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인제, 원통의 전방부대에 배치된 군인들이 유배지와 같은 오지에서 힘든 군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인제, 원통 지역 최전방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는 바로 을지부대. 특히 을지부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는 장병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전군에서 가장 전방에 있는 신병교육대이며 교육이 힘들다고 소문이 나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병교육대에 위치한 을지사 포교원은 군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병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봉행되는 정기법회에 200여 불자 장병들이 동참 정도로 법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자대에 배치된 이후에도 해당 부대 군법당에서 종교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을지사 박만순 군법사가 법당 예절, 기초교리 등을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어 장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주마다 600명이 인입소를 해 교육을 받고 있는 을지사 포교원은 군포교에서도 ‘최전방’인 셈이다.

을지사 포교원 군종병 윤재영 상병은 “개인적인 경험을 반추해보면 훈련도 힘들지만 최전방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군생활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한다”며 “그나마 매주 법회에 나와 법사님의 설법을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이 군생활의 안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교대 법당은 초라한 조립식 건물이다. 냉난방시설조차 갖추지 못해 종교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봉기 몇 대로 여름을 나야하고 겨울에는 카페



인제·원통지역 신병교육대에 위치한 을지사 포교원은 냉난방시설 보수와 정기적인 후원이 절실히 하다. 사진은 을지사 박만순 군법사가 9월 17일 일요법회에서 기초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

냉난방 시설 없는 조립식 건물서 법회

후원·결연 없이 신심 하나로 무장

트와 좌복으로 추위를 몸으로 이겨가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대대급 법당이다보니 군종병이 다른 업무를 보다 주말에 야외로 정기법회를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법당 관리도 안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매 법회 때마다 군법사가 화주를 통해 어렵게 과자와 음료수를 겨우 준비할 정도여서 보수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보니 후원이나 결

연을 통한 외부 지원은 전무하다.

을지사 박만순 군법사는 “무엇보다 장병들이 겨울에 따뜻한 법당에서 법회를 불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정기적인 후원이나 결연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장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밝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3-462-1416 후원계좌 243-01-168777 농협 을지사

김두서 기자 doobi@buddhapia.com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
 -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를 추진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당 후원: 소외된 군법당을 위한.
 - ▷군법당 간접 후원: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법사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점감정 후원 석가모니상(상.계료) 문의:02-2004-8291

만인 동참 ARS: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진각종 대구청년회 재창립

대구지역 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진각종 청년불자모임이 재창립됐다.

진각종 대구청년회(회장 황성재)는 9월 16일 대구교구청 회담실인당에서 재창립 법회 봉행후 현판식을 갖고 새 활동에 들어갔다.

황성재 신임 대구청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청년회를 부흥시키는 임무를 맡게돼 어깨가 무거움을 느낀다”며 “초심 불망하는 마음으로 대구지역 청년포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선정 전수, 교육원장 경정 정사, 통리원 총무부장 회성 정사 등 청년회원 1백여명이 참석했다.



법상종 예수재·구족계 봉행

대한불교 법상종은 9월 19일 법상종 본산 안성 쌍미특사에서 생전예수재 및 구족계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종정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해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장종 종신을 되새겨 제2 장종

을 한다는 굳은 마음으로 종단 사업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보선원서 수계산림법회



대한불교 전통조계종은 9월 17일 구미 삼보선원에서 제3차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하였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능인 총무원장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마하몰 한가위 맛이 효도선물용품 지상 특가전

오직 현대불교신문 지면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기회!! [특판기간: ~ 10월15일까지]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희귀한 검은 돌이 뿜어 내는 깊고 그윽한 기운을 느껴 보십시오

희담석 건강용품·점질팩 20% 할인판매 및 사은품증정 [에너지 방사능력으로서,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거친 재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으로서 건강과 활력을 주는

- 희담석 염주: 정가 66,000원 특판가 52,800원
- 희담석 점질팩 세트: 정가 148,000원 특판가 110,000원
- 희담석 점질팩: 정가 38,000원 특판가 30,400원
- 희담석 점질팩: 정가 66,000원 특판가 52,800원
- 희담석 허리팩: 정가 44,000원 특판가 35,200원
- 희담석 머그잔세트: 정가 66,000원 특판가 66,000원
- 희담석 눈점질팩 판매가 16,500원

희담석 제품 구매고객 사은품

광물이 숨을 쉰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루이스톤 건강용품 - 15% 할인판매

아루이스톤이란 천광석이라고도 하며, 자체에서 인체에 이로운 기운을 방출합니다. 가까이 두면 자연히 기운이 정화되고 강화되며, 탁기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놀라운 광물입니다.

- 정기생기 베개: 정가 80,000원 특판가 68,000원. 크기: 낮은베개 5cm / 높은베개 7cm
- 정기생기 방석: 정가 65,000원 특판가 55,250원. 크기: 가로 450mm X 세로 450mm
- 머리카락이치는 경추베개: 정가 60,000원 특판가 51,000원
- 추천힐트상품: 하이얼 2인용 커피메이커 HK-3000 500개 한정 특판가 15,000원 (배송비 3,000원 별도)
- 추천힐트상품: 마직필로우 MAGIC PILLOW 500개 한정 특판가 29,500원 (배송비 포함)

고객센터 02-732-1520 [입금계좌안내] 농협 053-01-267081 / 국민 023501-04-074548 (예금주:마하몰)